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7장 죄를 죽이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 (1)

『죄 죽이기』 제7장, 인쇄 93~108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이 장부터 특정한 죄를 죽이는 구체적 방법을 다룬다. 그 전에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할 '일반 지침'을 먼저 세우는데, 그 첫째가 “죄 죽이기는 오직 신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는 단순하다. 죄를 죽이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안에만 계시기 때문이다. 오웬은 이어서, 죄를 깨달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 죽이기부터 붙들 때 생기는 세 가지 해악을 보여 준다. 회개를 놓치고, 자기가 괜찮다고 착각하고, 끝내 절망해 죄에 항복한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러면 불신자는 죄를 내버려 두라는 말이냐”는 반론에 답한다. 끝으로 설교자들에게 권면하고, 로마 가톨릭과 일부 상담가들의 서약식 죄 죽이기를 비판하며 마무리한다.

📜 절별 정리

📜 1. 일반 지침이 먼저 필요한 이유

오웬은 지금부터 사탄이 우리 영혼을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데 쓰는 특정한 욕망과 죄를 죽이는 방법과 수단을 다루겠다고 한다. 여기서 '죄 죽이기(mortification)'란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의 힘을 성령으로 꺾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평생 싸움이다. 그런데 구체적 방법에 앞서 먼저 깔려 있어야 할 원리와 토대가 있다. 오웬은 이것을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부른다. 그의 주장은 강하다. 죄를 아무리 깊이 깨닫고 아무리 단호하게 결심해도,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출발점이 바른지가 승패를 가른다는 뜻이다.

2. 깨달음과 결심만으로는 죄가 죽지 않는다
3. 일반 지침을 어기면 죄 죽이기는 불가능하다

📜 2. 첫째 지침: 죄 죽이기는 오직 신자의 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가 아니면 단 하나의 죄도 죽일 수 없다. 오웬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한다. 자기가 신자인 줄 '알아야'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알든 모르든 '실제로' 신자가 아니면 죽일 수 없다는 말이다. 근거는 성경이 죄 죽이기를 누구에게 명령하느냐에 있다. 로마서 8:13의 “너희”는 1절의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골로새서 3:5의 명령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반대쪽 예도 든다. 세네카, 키케로,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들은 자기를 이기고 감정을 다스리라고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참된 죄 죽이기와 거리가 멀었다. 오웬은 이를 이정표에 그린 태양과 하늘의 태양만큼 다르다고 말한다. 빛도 열기도 없었다는 것이다. 동시대 풍자작가 루키아노스가 그들의 실상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도 덧붙인다. 교황주의자들, 곧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서약과 고해와 보속 고행으로 죄를 죽이려 하는 것도 같은 길이다. 로마서 9:31-32처럼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한다. 양심이 깨어 죄를 버리려 애쓴 우리 가운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1. 실제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만 가능하다
2. 성경의 명령은 살아난 신자들에게 주어졌다
3. 철학자의 절제는 그림 속 태양 같다
4. 고행과 서약은 행위를 의지하는 길이다

> **로마서 8:13**
> 죄 죽이기의 주체가 “너희”, 곧 신자임을 보임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골로새서 3:5

죄를 죽이라는 명령 자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1, 3:3, 3:4

명령을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임

골로새서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로마서 9:31-32

행위를 의지한 시도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원리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 3. 의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 없이는 불가능

오웬은 율법이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죄 죽이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힘으로 하라는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의무다. 오웬은 종의 예를 든다. 주인이 종에게 “어디 가서 돈을 받아 와 그 돈으로 지불하라”고 했다고 하자. 종이 돈을 받아 오는 단계를 건너뛰면, 지불을 했어도 주인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다. 죄 죽이기도 그 앞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이실 수 있다는 것은 앞 장에서 이미 증명했다. 그러니 '성령의 내주', 곧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죽이겠는가. 오웬은 그것이 눈 없이 보고 혀 없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로마서 8장의 흐름이 이를 보여 준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8절). 그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것뿐이다(9절). 성령이 계시면 몸이 죄에 대해 죽고(10절),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하신다(11절).

1. 죄 죽이기는 모두의 의무이나 방식이 정해졌다
2. 종의 비유: 앞 단계를 건너뛰면 불순종이다
3. 죄를 죽이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다
4. 성령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만 계신다

> **로마서 8:8**
>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출발점
>
>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 **로마서 8:9**
>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육신의 상태를 벗어남
>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로마서 8:10**
> 성령이 계시면 몸이 죄에 대해 죽고 새 사람이 의에 살아남
>
>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로마서 8:11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 안에서 성령이 같은 일을 하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 4.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헛된 싸움: 먼저 나무를 바꾸라

말씀의 화살에 찔리거나 환난을 겪으면서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양심을 괴롭히는 욕망과 온 힘으로 싸운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싸우면 불을 끄기는커녕 불에 삼켜진다. 성령은 연단하는 불처럼 찌꺼기를 걸러내신다 (말라기 3:2-3). 하지만 그 연단은 원래 금과 은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예레미야 6장의 놋과 철은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웬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할 일은 이런저런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돌이키는 회심이라고 말한다. 기초 없이 건물만 올리다가 날마다 무너지는데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성경의 예도 같다. 마음이 찔린 무리에게 베드로는 교만과 분노를 죽이라 하지 않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다(사도행전 2:37-38).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결례 대신 뿌리에 놓인 도끼를 전했다. 주님도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잘라도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니 나무 자체를 좋게 하라고 하셨다.

1. 그리스도 없는 싸움은 불에 삼켜진다
2. 연단은 본바탕이 금·은일 때만 효과 있다
3. 불신자의 첫 과제는 죄 죽이기 아닌 회심
4. 가지치기가 아니라 나무를 바꿔야 한다

말라기 3:2-3

성령의 정화가 연단하는 불과 잿물 같음

2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사야 1:25, 이사야 4:4

찌꺼기·더러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사야 1:25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사야 4:4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레미야 6:28-30

놋과 철은 아무리 연단해도 버린 은이 된다는 경고

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29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사도행전 2:37-38

찔린 이들에게 먼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한 사도의 순서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3:10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문제는 뿌리라는 선언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2:33

나무를 좋게 해야 열매가 좋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 5. 첫째 해악: 정작 해야 할 회개를 놓친다

하나님은 말씀과 심판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신다. 그의 양심을 괴롭히고 안식을 빼앗으신다. 그때 그가 할 일은 그 죄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상태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불신자가 죄 죽이기에 몰두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자기애일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서 멀어진다. 호세아서의 에브라임이 그랬다. 하나님이 그물을 치셔서 도망칠 수 없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오웬은 이것을 영혼을 망치는 가장 흔한 속임수 가운데 하나라고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엉터리 처방을 늘어놓는 이들이 무지한 사람들을 이 길로 이끌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양심이 괴로우면 대개 그 죄와 맞붙어 싸우는 데 몰두한다. 그러다 깨달은 죄를 해결하려고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1. 죄를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께 오라는 부르심
2. 죄 하나와 씨름하는 건 회개의 회피다
3. 동기가 고통 회피면 자기애일 뿐이다
4. 복음이 바로 깨달은 죄의 해답이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호세아 7:16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모습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 6. 둘째·셋째 해악: 자기 의로 굳어지고, 끝내 절망한다

둘째 해악은 착각이다. 죄를 죽이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선해 보이고 양심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 상태가 좋아졌다고 결론 내리기 쉽다. 오웬은 이것이 자기 영혼을 속이는 일인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첫째, 병든 양심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고침받아야 하는데, 그는 죄와 싸운다는 명분으로 양심을 달래며 주저앉아 있다. 에브라임이 병을 깨닫고 하나님 대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낸 것과 같다(호세아 5:13). 오웬은 교황의 종교 전체가 그리스도 없이 양심을 진정시키는 술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이는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모습이다(로마서 10:3). 둘째,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만족하고, 마음이 자기 의로 굳어진다. 여기서 '자기 의'는 내 노력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근거로 삼는 태도다.

셋째 해악은 절망이다. 오랜 세월 뒤에 그는 죄가 죽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한 죄를 끊었더니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자신도 본다. 쌓아 온 둑이 무너져 물이 덮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모든 방책을 내던지고 자신을 죄의 권세에 넘겨 버린다. 오웬은 이런 시도가 사람을 속이고, 굳게 하고, 파멸시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 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애쓰다 포기한 사람보다 비참한 죄인은 없다. 그는 이것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가축처럼 몰아 강제로 세례 주고 회중에게 죄 죽이기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실체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율법주의'란 은혜와 믿음 없이 규칙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태도다. 결론은 이렇다.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죽은 사람이고,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 원칙은 이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분깃을 확보하라.”

1. 싸운다는 것 자체로 안심하면 속는 것이다
2. 그리스도 대신 다른 치료자를 찾는 것이다
3. 끝은 자기 의로 굳어짐이거나 절망이다
4. 한 죄를 끊고 다른 죄로 옮겨갈 뿐이다
5. 죄 죽이기는 살아 있는 자, 믿음의 일이다

> **호세아 5:13**
> 병을 깨닫고도 하나님 대신 다른 데서 치료를 찾음
>
>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 **로마서 10:3**
> 자기 의를 세우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음
>
>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사도행전 15:9**
>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
>
>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 **베드로전서 1:22**
> 성령으로 진리에 순종해 영혼을 깨끗하게 함
>
>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죄 죽이기는 믿음의 일이고, 오직 믿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 7. 반론과 답변: 그러면 불신자는 죄를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

예상되는 반론은 이렇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죄와 싸우지 말라고 하면, 모두가 욕망대로 살아 세상이 홍수에 잠기듯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 오웬은 넷으로 답한다. 첫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혜와 선하심으로 여러 수단을 쓰셔서 사람들이 부패한 본성대로 폭주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이미 지옥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말씀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고유한 힘이 있다.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놀라게 해서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한다. 셋째, 죄 죽이기는 말씀과 성령의 선한 일이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주된 목적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아직 죄 죽이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넷째, 오웬은 죄 죽이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심하라는 것이다. 집 전체가 불타는데 벽의 구멍부터 메우려는 사람에게 “불부터 끄라”고 말하는 이를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픈 손가락보다 온몸을 갉아먹는 폐결핵부터 고쳐야 한다. 죄 하나에 몰두하느라 자신 전체가 죄덩어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섭리로 죄의 폭주를 억제하신다
2. 말씀은 회심 없이도 죄를 어느 정도 막는다
3. 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회심하라는 뜻
4. 불타는 집, 폐결핵: 전체 문제부터 다루라

📜 8. 설교자에게 주는 권면, 로마 가톨릭과 서약식 처방 비판

오웬은 설교자들에게 말한다.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의 고유한 목적, 곧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려는

붙잡아 가두는 것은 광장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을 성에 가둬 두는 것과 같다. 그는 언제든 다른 죄를 짓는다. 설교자는 그 죄의 근원을 끝까지 추적해 죄인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점에서 틀렸다. 사람에게 죄를 죽일 원리, 곧 믿음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재하는 죄'를 죽이라고 강요한다. 여기서 내재하는 죄란 회심 뒤에도 마음 안에 남아 죄로 이끄는 성향이다. 그들에게 믿음은 교리에 대한 일반적 동의이고, 죄 죽이기는 서약하고 세상 것을 조금 절제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일 뿐이다. 개신교 안에도 문제가 있다. 일부 '궤변가(casuist)', 곧 양심 문제를 사례별로 상담해 주던 이들은 거듭남을 건너뛴다. 그러고는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달쯤 그 죄와 싸우겠다고 서약하라고 처방한다. 오웬은 그들을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결과는 대개 욕망이 더 맹렬해지고, 서약을 어겨 죄책감과 혼란이 커지는 것이다. 오웬은 이것을 볏짚도 주지 않고, 그것도 힘없는 사람에게 벽돌을 만들라는 요구에 빗댄다. 이런 방법은 사람을 자기 의에 찬 위선자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 오웬은 열심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을 몰라 무거운 외형적 섬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며 참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 그들이 자기 길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장을 맺는다.

1. 죄 지적의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게 함
2. 죄 하나만 가두면 다른 죄가 터진다
3. 믿음 묻지 않는 강요는 원리가 뒤집힌 것
4. '한 달 서약' 처방은 죄책감만 키운다
5. 위선자는 만들어도 그리스도인은 못 만든다

> **마태복음 3:10**
> 노련한 설교자는 뿌리에 도끼를 대야 함(앞 절 인용을 다시 적용)
>
>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 **마태복음 22:29 (암시)**
>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의 배경

마태복음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고린도후서 4:6 (암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해결책

고린도후서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남은 죄의 세력을 꺾어 가는 신자의 평생 싸움.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회심한 뒤에도 마음속에 남아 계속 죄로 끌어당기는 성향.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일. 죄 죽이기 능력의 원천이다.

육신에 있다

성령 없이 타고난 본성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로마서 8:8).

회심·거듭남

성령께서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 생명을 주시는 일. 죄 죽이기의 출발점이다.

분깃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몫으로 받은 몫과 권리. "그리스도 안에 분깃이 있다"는 말은

보속 고행

로마 가톨릭에서 죄의 대가를 갚는다는 뜻으로 행하는 고행과 선행.

율법주의

은혜와 믿음 없이 규칙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태도.

자기 의

내 행실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근거로 삼는 태도.

궤변가(casuist)

양심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처방을 내려 주던 상담가. 여기서는 거듭남을 건너뛴 처방을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죄 죽이기는 성령의 일이고, 성령은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 안에만 계시므로 오직 신자만 죄를 죽일 수 있다.
-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죄 죽이기부터 붙들면 회개를 놓치고, 자기 의로 굳어지고, 끝내 절망해 죄에 항복한다.
- 그러므로 첫째 원칙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분깃을 얻으라”는 것이다.
- 설교자는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되, 그 죄의 뿌리를 따라가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해야 한다.
- 고행이나 서약 같은 처방은 위선자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는 없다. 해답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7편 · 먼저 나무를 바꿔라 · 신자만 할 수 있고, 전체 순종 없이는 안 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